

함평군, 공직자 청렴도 향상·인권의식 개선 총력

각 부서 대표 81명 참여 '청렴골든벨 퀴즈대회' 성료 신광면 '최우수' 차지...300명 대상 인권교육도 실시

함평군 공직자들이 청렴도 향상과 인권의식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3일 함평군청 대회의실에서 군 산하 전직원이 참여하는 '제6회 청렴 골든벨 퀴즈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퀴즈대회는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더욱 끌어 올리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이번 퀴즈대회에는 각 부서 대표 81명이 참여해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한 생활화 의지를 다졌다.

대회는 부서장 포함 3인 1조 팀 서바이벌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OX형, 사지선다형 등 총 50여 개 문항이 난이도별로 출제됐다.

대회 결과 신광면이 최우수상을 차지해 상금 100만원과 청렴마일리지 50점을 수상했다.

우수상 2개 팀엔 상금 50만원과 청렴마일리지 40점이, 장려상 4개 팀엔 상금 30만원과 청렴마일리지 30점이 각각 시상됐다.

특히 청렴 마일리지는 군 청렴시책 참여도에 따라 부서별로 매달 누적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은 부서의 경우 연말에 시상금을 지급받는다.

군은 이어 지난 4일에는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사·군 순회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9월 정례회와 함께 실시된 이날 교육에는 300여 명의 공직자가 참석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인권행정 업무를 위한 인권감수성 향상을 다짐했다.

특히 이날 교육을 맡은 국가인권위원회 송선화 인권강사는 '인권, 불편함과 마주하다'라는 주제로 ▲인권교육의 필요성 ▲인권적 태도 형성과 연대의 필요성 ▲인권감수성 증진 방안 등을 시·각 자료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제시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



함평군은 지난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 산하 전직원이 참여하는 '제6회 청렴 골든벨 퀴즈대회'를 개최했다. <함평군 제공>

무안군, 지난해 살림살이 규모 7962억원 전년도 보다 1083억원 늘어 증가세 지속

무안군이 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운용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군의 살림 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무 재로화를 실현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공시자료에 따르면 무안군의 지난해 총 살림규모는 7962억원으로 2017년 대비 1083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유사자치단체(군·나 유형) 평균액(6674억원)보다 1288억원 많은 수치다.

또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724억원으로 유사자치단체 평균액(612억원)보다 112억원이 많았으며,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400억원으로 유사자치단체 평균액(4107억 원)보다 293억원이 많은 것이다.

지방 채무는 0원으로 2015년부터 채무 재로화를 이어가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자체수입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



가을의 전령사 '열기'를 아시나요

20일부터 '홍도 불블락 축제' 개최 회무침 시식회·깜짝경매 등 행사 선상낚시 짜릿한 손맛 체험 기회도

신안 홍도에서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홍도 불블락 축제'가 열린다.

홍도는 석양이 시작되면 바닷물과 섬이 붉게 보인다고 해서 이름 지어진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다.

가을의 전령사 불블락은 연안에 정착해 갑각류, 작은어류, 갯지렁이류 등을 섭식하는 어종으로 2-6월 사이에 산란을 하며, 지역 방언으로 '열기'라고 불린다.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 제170호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홍도는 아름다운 기암괴석과 신비한 자연의 비경을 자랑하는 섬이다.

이번 축제 기간에는 해상 선박 페어리드, 불블락 회무침 요리 및 시식회, 깜짝 경매, 초청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제공과 선상낚시 체험행사를 통해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최일남 축제추진위원장은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인 홍도의 불블락을 소재로 홍도와 전사섬 신안을 널리 알리는데 일조하고자 주민들이 단합해 축제를 마련했다"며 "오감이 만족하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 홍도는 목포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쾌속선 배편으로 2시간 30분 거리에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함평군 SNS 홍보단' 위촉 주요 시책·정보 주민 공유

함평군이 '함평군 SNS 홍보단' 위촉하고 본격적인 SNS 홍보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는 나운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홍보팀장, SNS 홍보단원 등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홍보단은 현재 군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공식 SNS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주요시책과 같은 중요한 정보는 외부에 적극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 다각적인 군정홍보를 위해 군 개입은 최소화하는 한편 지역관광명소, 축제, 농·특산물, 맛집과 같은 분야별 콘텐츠를 홍보단이 직접 제작해 공유한다.

나운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젊은 층 일부만이 사용하는 SNS가 이제는 일상 속 확고한 소통 중심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오늘 위촉된 SNS 홍보단을 적극 지원해 더 많은 사람들이 보다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군 SNS 홍보단은 상시 모집하며, SNS 이용자 중 함평에 관심이 많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 전자기기(사진, 동영상 등 촬영) 활용에 능숙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

영광 한빛원전, 천일염젓갈축제 추진위서 감사패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 영광천일염젓갈축제추진위원회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 축제는 영광지역 특산물인 천일염과 젓갈 판매를 촉진시키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갯벌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9월1일까지 3일간 영광군 염산면 향화도항 일원에서 열렸다.

한빛원전은 이번 축제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축제추진위원회에 3000만원을 지원했다.

원전 주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인 한빛원전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특산물 판매촉진과 지역축제 지원 등에 총 34억원을 사업자지원 사업비를 통해 지원했다.

올해는 최근까지 총 1억2000만원이 전달됐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영광경찰, '농촌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NH농협손해보험서 안전모 등 전달받아

영광경찰서는 지난 5일 경찰서 서장실에서 NH농협손해보험이 지원하는 '교통안전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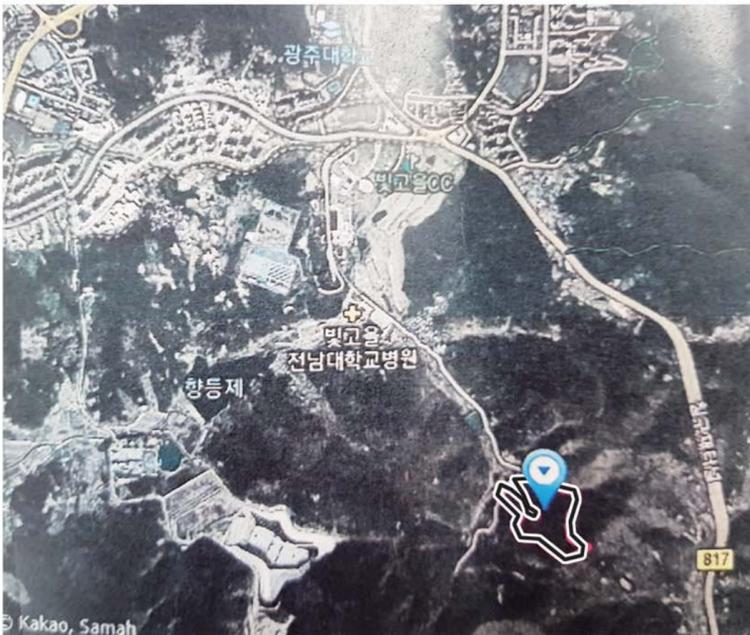
이 날 전달식은 경찰청의 '교통사망사고 확 줄이기'와 농촌지역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NH농협손해보험의 '농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보급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륜차 안전모(150개) 등 전달된 물품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홍보할

동 때 활용될 예정이다.

정재운 영광경찰서장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소시키고 교통법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경찰의 노력과 더불어 교통사고 예방 물품 지원에 민경이 뜻을 같이 했다"며 "이번 교통안전물품 보급 확대가 교통사망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덕남동, 임야 급매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992㎡,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